

# 여성용 기성복에 대한 적합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Fit and Problems of Ready-to-Wear Garment in Women

김 양 원  
대전대학교 의류학과

Kim, Yang We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Taejon Univ.

---

### Abstract

To investigate the fitting and its problems related in clothing fit and to get basic data to develop fitted ready-to-wear garment, total 238 subjects were surveyed during the period of May, 1997 in Taejon.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subjects had purchased ready-to-wear garments in a department store.
2. The fit of ready-to-wear garments is more suitable in the upper wear such as T-shirts and blouse than in lower wear such as skirts and pants.
3. Fitting problems in ready-to-wear garments were identified, including sleeve length, shoulder area.
4. A variety of fitting problems in ready-to-wear garments were showed waistline, thigh girth, sleeve length.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emographic variables, i.e.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and clothing problems.

### I. 서 론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의생활에 있어서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 제작하는 주문복 보다는 스타일의 변화가 빠르고 종류가 다양한 기성복을 구입하여 입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홍숙과 정삼호

(1990)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의복구입시 기성복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92%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기성복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표준 치수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복들을 대량 생산한다. 그러므로 이 사이즈 체계에 속하지 않는 각 개인이 기성복을 사 입었을 때에는 의복이 잘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의복을 입었을 때 의복

이 잘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복제작시 정확하게 다수의 체형특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치수 등급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신체에 적합한 의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체계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체의 사이즈와 인체의 특성치를 수량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를 선정하고, 치수를 분류하여, 이를 기초로 의복의 패턴과 의복의 여유분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정옥임, 199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은 범국민적인 표준체위 조사에 의한 과학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업체별로 시행착오를 거쳐 업체 독자적으로 만든 치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사이즈 규격과 치수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업체마다 다른 치수체계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김양원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치수표시에 대한 불만이 전체 응답자의 4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수와 관련한 의복의 적합성이 의복을 구입할 때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ogge와 Baer(1986)도 소비자들은 의복을 구입할 때, 의복의 맞는 정도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의복을 구입할 때에 아무리 다른 요소가 마음에 들더라도 그 옷의 적합성의 정도가 맞지 않으면 결국 구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의복 구입후 의복이 잘 맞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불만족을 초래하고, 결국 의류업자들은 판매에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행하여진 이에 관한 연구로는 기성복 사이즈에 관한 만족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정홍숙& 정삼호, 1990 ; 공민희, 1982)와 중년여성의 기성복의 치수체계(최혜선, 1995)등 몇 편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의복의 적합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기성복의 신체적 적합성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성복 개발을 위한 치수 체계 정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우리 나라 여성의 기성복 구입현황과 현행 기성복의 적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1997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대전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0대의 성인 여성 238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사항

인구통계학적 사항		빈도수 (n= 238)	백분율(%)
연령	20세이상 ~30세 미만	157	66.6
	30세이상 ~40세 미만	49	20.6
	40세이상	32	13.4
결혼유무	기혼	68	29.6
	미혼	170	71.4
출산경험	있 다	51	20.6
	없 다	187	79.4
직업유무	있 다	76	31.9
	없 다	162	78.1

## 2. 측정도구

우리나라 여성의 기성복에 대한 적합성, 즉 맞음새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의복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14문항, 의복이 잘 맞지 않았을 때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8문항, 의복의 구입 장소에 관한 사항 3문항, 의복의 사이즈에 관한 사항 3문항 및 인구 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김선화, 1996; 최혜선 & 이경미, 1995; Hogge & Baer, 1986)를 토대로 하여 추출한 문항과 연구자가 추가로 조사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 3. 자료처리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요인과 의복적합성 문제점들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분석하는데 빈도수와 백분율이 사용되었다. 또 각 문항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chi^2$  검증하였다.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를 20대, 30대, 40대이상으로 나누어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 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의복의 구입은 응답자의 61.8%가 주로 백화점에서 하였고, 할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16.4%로 두 번째로 많았다.

## 2. 기성복의 적합성 정도

기성복으로는 자켓, 블라우스, T셔츠, 스커트, 바지, 원피스, 코트등 7가지에 대한 적합성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셔츠류와 블라우스의 경우 의복이 비교적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약 40%정도는 스커트와 바지의 적합성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선화(1996)의 연구에서는 스웨터 58.3%, 바지 50%, 스커트 46.6%가 잘 맞는다고 응답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으로부터 상의와 하의의 적합성 정도를 비교하며 보면, 상의가 하의보다 적합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 의복의 구입현황

1) 의복구입현황 및 장소  
조사대상자의 97.2%가 의복구입시 기성복을

## 3. 기성복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점

### 1) 기성복의 종류별 부적합 부위

자켓, 블라우스, T셔츠류, 스커트, 바지, 원피스, 코트 등 7가지에 대한 부적합 부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켓은 소매길이 적합성이 가장 떨어졌고, 다음이 어깨넓이

<표 2> 각 의복의 적합성 정도

n(%)

적합성정도 의복의 종류	잘 맞는다	잘 맞는 편이다	보통이다	안 맞는 편이다	안 맞는다
자켓	68(26.0)	49(18.7)	99(37.8)	39(14.9)	7(2.7)
블라우스	97(37.0)	50(19.1)	79(30.2)	30(11.5)	6(2.3)
T셔츠	118(45.0)	59(22.5)	53(20.2)	29(11.1)	3(1.1)
스커트	56(23.1)	40(16.5)	80(33.1)	53(21.9)	13(5.4)
바지	49(18.8)	56(21.5)	88(33.7)	52(19.9)	16(6.1)
원피스	58(25.7)	48(21.2)	67(29.6)	35(15.5)	18(8.0)
코트류	89(34.4)	42(16.2)	92(35.5)	26(10.0)	10(3.9)

〈표 3〉 기성복의 종류별 부적합 부위

n(%)

의복의 종류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어깨넓이	
상의	자켓	21 (24.4)	8 (9.3)	5 (5.8)	29 (33.7)	23 (26.7)
	블라우스	25 (27.2)	7 (7.6)	8 (8.7)	27 (29.3)	25 (27.2)
	T셔츠	26 (23.2)	10 (8.9)	12 (10.7)	32 (28.6)	32 (28.6)
하의	허리둘레	영덩이 둘레	치마/바지길이		폭/ 밀위길이	
	치마	17 (25.4)	26 (38.8)	15 (22.4)		9 (13.4)
	바지	14 (17.3)	25 (30.9)	22 (27.1)		20 (24.7)
기타	가슴둘레	허리둘레	영덩이둘레	소매길이	어깨넓이	
	원피스	26 (51.0)	8 (15.7)	4 (7.8)	6 (11.8)	7 (13.7)
	코트	15 (18.3)	11 (13.4)	7 (8.5)	28 (34.1)	21 (25.6)

였다. 블라우스는 소매길이가 가장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슴둘레와 어깨넓이가 다음으로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T셔츠에서도 역시 소매길리와 어깨넓이가 적합성이 가장 떨어졌다. 따라서 상의에서는 소매길이가 가장 문제되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또, 스커트와 바지에서는 영덩이둘레가 안 맞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안 맞는 부위는 스커트에서는 스커트길이였으며, 바지에서는 밀위길리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가슴둘레가 안 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코트는 소

매길이가 안 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2) 기성복 착용시 부위별 문제점

전체 조사대상자가 기성복 착용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둘레항목과 길이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둘레항목에서는 허리둘레와 허벅지둘레가 크다(약간 크다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3.3%, 22.5%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영덩이둘레와 허벅지둘레에서는 반대로 작다(약간 작다 포함)고 응답한 비

〈표 4〉 기성복 착용시 나타나는 문제점

n(%)

부위	적합정도	크다	약간 크다	적당하다	약간 작다	작다
* 둘레항목	가슴둘레	17 (7.1)	36 (15.1)	146 (61.4)	33 (13.9)	6 (2.5)
	허리둘레	15 (6.3)	64 (26.9)	109 (45.8)	40 (16.8)	10 (4.2)
	영덩이둘레	17 (7.1)	31 (13.0)	119 (50.0)	64 (27.0)	7 (2.9)
	허벅지둘레	6 (2.5)	48 (20.2)	130 (54.6)	51 (21.4)	3 (1.3)
	적합정도	길다	약간 길다	적당하다	약간 짧다	짧다
* 길이항목	등길이	8 (3.4)	78 (32.8)	132 (55.4)	17 (7.1)	3 (1.3)
	소매길이	11 (4.6)	70 (29.4)	92 (38.7)	56 (23.5)	9 (3.8)
	치마길이	8 (3.4)	64 (26.9)	126 (52.9)	33 (13.9)	7 (2.9)
	밀위길이	3 (1.3)	48 (20.2)	157 (66.0)	24 (10.0)	6 (2.5)
	바지길이	21 (8.8)	45 (18.9)	121 (50.8)	48 (20.2)	3 (1.3)
	블라우스 길이	11 (4.6)	23 (9.7)	145 (60.9)	46 (19.3)	13 (5.5)
	자켓길이	7 (2.9)	29 (12.2)	158 (66.4)	40 (16.8)	4 (1.7)

울도 각각 응답자의 29.5%, 22.5%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들레항목에서는 허리들레, 엉덩이들레, 허벅지들레가 적합성이 떨어지는 부위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최혜선과 이경미(1995)는 우리 나라 기성복 표준치수가 외국치수에 비하여 호칭종류가 적고, 기준자체가 신장, 가슴들레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체형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치수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부적합성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길이항목에서는 블라우스길이, 자켓길이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약 50%정도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매길이는 38.7%만이 적당하다고 하여 가장 문제가 많은 부위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Goldsberry 등(1996)에 의하면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길이 문제였으며, 이것의 주된 것은 길이가 길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길이가 짧다는 문제보다는 긴 것이 문제가 컸다. 이럴 경우 응답자의 약 80%이상이 수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길이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선을 하는 부위는 충분한 시접분이 있는 경우, 스커트나 바지 길이 같은 스타일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의복 적합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중 그것을 해결하는데 기본 패턴에 그레이딩이나 의복의 디자인을 바꿔야 할 경우는 수선이 힘들다고 생각된다. 한편, 바지, 블라우스, 자켓 등의 길이는 유행이나 개인적인 기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이므로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부적합성이 지적되는 것은 의복의 호칭 분류시 실제적인 인체의 비례나 체형에 관한 정보와 같은 고유한 신체적 특성이 치수체계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3) 기성복 문제점들의 해결방법

구입한 의복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응답자의 50.4%가 수선하기도 하고 그냥 입을 때도 있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37.0%는 반드시 수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선을 할 경우 누구에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51.9%의 응답자는 구입매장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34.4%는 세탁소를 이용한다고 하여 두 번째로 많았다. 김선화(1996)의 연구에서는 수선을 할 경우 60%정도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거주하는 아시아 여성과 우리 나라 여성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 4. 배경변인과 의복문제점

### 1) 연령과 의복문제점

각종 의복의 적합성 정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성복의 종류별 부적합 부위는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p < .05$ ). 자켓은 20대는 소매길이, 30대 이상은 가슴들레가 가장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는 20대는 바지길이가 안 맞는 비율이 높았고, 30대 이상은 허리들레와 밀위길이가 안 맞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시 1997년에 유행한 바지의 스타일이 힙합바지여서 밀위길이가 짧았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에 따라서 신체적 비례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남윤자(1983)는 30~50대의 여성은 허리-가슴, 허리-엉덩이의 차이가 감소하여 유방과 둔부가 차지하는 체형변화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체격이나 체형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치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결혼 및 출산과 의복문제점

결혼여부와 의복문제점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슴들레, 엉덩이들레, 밀위길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슴들레의 경우, 기혼 여성들은 45.6%만이 적당하다고 답한 반면 미혼여성들은 66.5%가 적당하다고 하여 기혼여성의 경우가 가슴들레부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는 임신이나 수유 등에 의해 가슴들레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되고,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

〈표 5〉 혼인 여부와 의복문제점

n(%)

의복 문제점	혼인여부		x <sup>2</sup>
	미혼 (n=170)	기혼(n=68)	
· 가슴둘레			13.4*
크다	12 (7.0)	4 (5.9)	
약간 크다	18 (10.6)	9 (13.2)	
적당하다	113 (66.5)	31 (45.6)	
약간 작다	17 (10.0)	17 (25.0)	
작다	10 ( 5.9)	7 (10.3)	
· 엉덩이둘레			13.9*
크다	14(8.2)	3 ( 4.4)	
약간 크다	21(12.4)	8 (11.8)	
적당하다	109(64.1)	32 (47.0)	
약간 작다	17(10.0)	20 (29.4)	
작다	9(5.3)	5 ( 7.4)	
· 밑위길이			11.0*
길다	21 (7.1)	3(4.4)	
약간 길다	20 (11.8)	6(8.8)	
적당하다	120 (70.6)	40(58.8)	
약간 짧다	13 ( 7.6)	13(19.2)	
짧다	5 (2.9)	6(8.8)	

라 체형이 변화하는 율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모두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미혼 여성의 경우가 더 높았다. 이는 미국내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선화의 연구(1996)에서는 밑위길이가 기혼여성의 경우가 미혼여성들보다 더 잘 맞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체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지에 대한 사이즈체계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출산 여부에 따른 의복문제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 기혼여성의 집단규모가 적고, 특히 이들 중에서도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가 75%이상이므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직업유무에 따른 의복문제점

〈표 6〉에서 보면, 직업유무에 따른 의복문제점은 스커트 길이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여성의 50% 이상이 스커트길이가 적당하다고 한 것에 반해 직업여성

〈표 6〉 직업유무에 따른 의복문제점

n(%)

의복문제점	직업유무		x <sup>2</sup>
	있다(n=76)	없다(n=162)	
· 스커트 길이			11.3*
길다	7 ( 9.2)	5(3.1)	
약간 길다	8(10.5)	29(17.9)	
적당하다	24(31.6)	92(56.8)	
약간 짧다	30(39.5)	28(17.3)	
짧다	7 ( 9.2)	8(4.9)	

은 31.6%만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48.7%가 약간 짧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직업여성의 경우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정숙성에 중점을 두고, 무직여성의 경우는 개성이나 유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 IV. 요약 및 결론

1997년 5월 한달 동안 대전시에 거주하는 238명의 성인여자를 대상으로, 의복의 구입현황과 기성복의 적합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복은 기성복을 주로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의 적합성 정도는 T셔츠와 블라우스가 비교적 높았고, 상의류가 하의류보다 더 높았다.
3. 각 기성복의 부적합 부위는 상의와 코트에서는 소매길이와 어깨넓이였고, 하의에서는 엉덩이둘레가 가장 안 맞았으며, 원피스는 가슴둘레에서의 적합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성복 착용시 문제가 되는 부위는 둘레항목에서는 허리둘레와 허벅지 둘레였고, 길이 항목에서는 소매길이였다.
5. 기성복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법은 응답자의 50.4%가 수선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입기도 한다고 하여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37%는 반드시 수선을 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선은 구입매장에서 50%이상이 수선하였고, 세탁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34.4%였다.
6. 연령이나 출산에 따른 의복문제점에는 차이가 없었고,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모두에서 적합성 정도가 낮았다.

이들 결과로부터 기성복은 적합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체 측정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 치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체형분류를 세분화하며, 신체 부위별 비율을 단순히 키나 가슴둘레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신체적 특징을 가미한 사이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각 기성복 업체에서는 공통된 사이즈규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선화(1996). 미국내 아시아여성들의 기성복에 대한 맞춤새 인지도 연구. 한국농촌 생활과학회지, 7(1).
- 정옥임(1990). 인체와 의복공학. 수하사.
- 정홍숙, 정삼호(1990). 성인 여성의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와 체형 및 연령과의 관계. 가정문화논총, 14,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원.
- 최혜선, 이경미(1995). 중년여성의 기성복의 컷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 Goldsberry, E., Shim, S., & Reich, N. (1996). Women 55 Year and Older: Part II. Overal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2).
- Hogge, V. & Baer, M. (1986). Elderly women's clothing: Aquisition, fit, and alterations of ready to wear garm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 Horn, M. & Gurel, 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